

전웅태, 근대5종 세계선수권 2관왕

〈광주시청〉

남자 계주 금메달 이어 김선우와 팀 이룬 혼성 계주 '금빛 피날레'

한국 근대5종 간판스타 전웅태(27·광주시청)가 2022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계주에 이어 혼성계주에서도 금메달을 수확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전웅태는 1일 새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경기 혼성계주에서 김선우(26·경기도청)와 호흡을 맞춰 펜싱·승마·수영·레이저 런(육상+사격) 점수 합계 1천393점으로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조셉 송과 제시가 발리(영국·1천380점) 조를 여유롭게 따돌리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지난해 서장완(전남도청)-김세희(BNK저축은행)에 이어 혼성계주 종목 2연패를 달성했다.

한국이 세계선수권대회 종목에서 2회 연속 우승을 거둔 건 2016·2017년 남자 계주(전웅태-황우진)에 이어 두 번째다.

전웅태는 정진화(한국토지주택공사)와 남자 계주 금메달에 이어 또 한번 정상에 서며 대회 2관왕에 등극했다.

'환상의 콤비' 전웅태, 김선우조는 혼성계주 첫 종목인 펜싱 랭킹 라운드에서 27등을 거두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승마에서는 300점 만점을 얻었고, 수영에서도 선두권 기록을 작성한 뒤 주력 종목인 레이저 런에서 2위 팀보다 42초나 앞서 출발하며 무난히 우승을 차지했다.

전웅태는 경기 후 국제근대5종연맹



한국 남녀 근대5종의 간판 전웅태(광주시청)와 김선우(경기도청)가 1일 열린 2022 국제근대5종연맹(UIPM) 세계선수권대회 혼성계주 경기에서 정상에 올랐다. 사진은 금메달 목에 건 김선우와 전웅태. <대한근대5종연맹 제공>

(UIPM)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 시즌은 정말 우리 한국 팀에게 대단한 한해가 됐다. 개인전에서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남자 계주와 혼성계주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해 매우 기쁘다. 이제 천천히 내년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혼성계주를 끝으로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 계주와 혼성계주 금메달, 여자 단체전 은메달, 여자 계주 동메달 등 총 4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남겼다.

종합 시상식은 없으나 이번 대회 출전 국가 중 영국(금2·은1), 개최국 이집트(금1·은2) 등을 제치고 가장 많은 메달을 따내 사실상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소피아 2022 세계태권도연맹 세계태권도유소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김향기(가운데)가 시상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 제공>

무안 해제중 김향기 세계태권도유소년선수권 '金'

무안 해제중 김향기가 지난달 29일 불가리아 소피아 아르미츠 아레나에서 열린 '소피아 2022 세계태권도연맹 세계태권도유소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난달 28-31일 진행됐으며 전 세계 77개국 만 12-14세 683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3전2선승제 방식의 성인 국제대회와 동일한 경기방식으로 치러진 결승에서 김향기는 터키의 데니즈 에실라를 세트스코어 2대0으로 꺾고 금메달을 거머 쥐었다.

이번 대회엔 해제태권도도장 김연지 사범이 국가대표 코치로 발탁돼 직접 선수단을 지도했다.

무안읍에서 '꽃이랑 향기랑' 화원을 운영하는 김 선수의 부모(김종민·홍운정)는 딸의 재능을 어릴 때부터 알아보고 해제태권도도장과 해제중학교로 진학시켜 전폭적인 지지를 해왔다.

김향기는 2019년 '한국초등학교 태권도 연맹 꿈나무 페스티벌 겸 아시아 카펫 대표 선발전' 금메달을 시작으로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태권도 정상에 올랐다. /무안=김성호 기자

스무살 김주형 '꿈의 무대' 입성 예약

PGA 투어 진출 사실상 확정

2022-2023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진출을 사실상 확정된 김주형(20)이 남자 골프 세계 랭킹 34위에 올랐다.

김주형은 1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끝난 PGA 투어 로켓 모기지 클래식에서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로 단독 7위를 차지했다.

지난주 남자 골프 세계 랭킹 39위였던 김주형은 5계단 오른 34위에 됐다. 자신의 역대 최고 랭킹이다.

현재 PGA 투어 특별 임시대위인 김주형은 2021-2022시즌 페덱스컵 순위 100위 안쪽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 이번 시즌 정규 대회 1개를 남기고 125위 이내에 드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김주형. /AFP=연합뉴스

스코티 셰플러(미국), 캐머런 스미스(호주), 로리 매캘로이(북아일랜드) 등이 1-3위를 유지하는 등 상위 12위까지 변화가 없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24)가 21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다. 이경훈(31)이 4위, 김시우(27)는 58위다. /연합뉴스

이상훈·박정태·니퍼트·배영수

고난 극복한 KBO 레전드 4인

KBO 사무국이 지난주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활약한 레전드 4인(박철순·이만수·백인천·김성환)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레전드 4명을 공개했다.

1일 KBO가 발표한 레전드 4명은 'KBO 40주년 40인 레전드' 가운데 슬한 고난을 극복한 선수들로 이상훈(27위), 박정태(32위), 더스틴 니퍼트(33위), 배영수(35위)가 그 주인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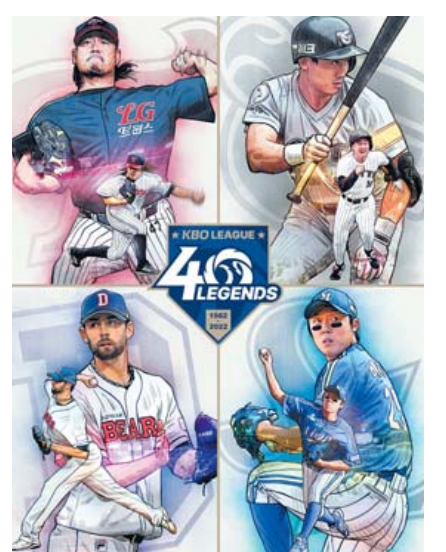
1993년 LG에 입단한 '야생마' 이상훈은 1995년 KBO에서 데뷔한 좌완 가운데 처음으로 선발 20승을 거두며 투수 골든글러브를 거머쥐었다.

거침없이 달릴 것 같던 이상훈도 척추분리증과 현행장애라는 암초를 만났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마무리 투수로 보직을 바꿨다. 자리를 변경하고 맞이한 두 번째 시즌인 1997년 이상훈은 10승 6패 37세이브 평균자책점 2.1로 세이브 부문 1위에 올랐다.

롯데 '원클럽맨' 박정태는 끈기로 부상을 이겨내고 재기한 선수다.

1992년 팀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한국시리즈 우승을 견인한 박정태는 1993년 주루 과정에서 왼쪽 발목이 부러져 다섯 번이나 수술을 받으며 위기를 맞았고, 재활 끝에 복귀해 1995년과 1999년 두 차례 롯데의 한국시리즈 진출을 이끌었다.

KBO리그 역대 외국인 투수 다승(102승)과 탈삼진(1천82개)을 보유한 니퍼트는 2015시즌 어깨통증증후군으로 슬럼프를 겪었지만, 그해 포스트시즌 슬럼프를 겪었지만, 그해 포스트시즌 맹활약으로 두산에 14년 만의 한국시리



KBO 사무국이 'KBO 40주년 40인 레전드' 가운데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레전드 4명을 공개했다. 사진은 '불굴의 의지' 레전드 4인(왼쪽부터 이상훈(왼쪽부터), 박정태, 배영수, 더스틴 니퍼트). <KBO 제공>

즈 우승을 선사했다. '푸른 피의 에이스' 배영수는 강속구 투수로 2005년과 2006년 삼성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팔꿈치 인대 접합수술로 구속이 급감해 선수 생명이 위기가 찾아왔고, 2009년에는 1승 12패 평균자책점 7.26이라는 성적에 그쳤다. 기고파 투수로 변신해 재기한 배영수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의 4회 연속 통합 우승에 일조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레전드로 선정된 선수들의 시상식은 이들의 전 소속 구단 홈 경기에서 진행한 맹활약으로 두산에 14년 만의 한국시리

'올해 가을야구도 수도권 그들만의 잔치?'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는 상위권과 하위권 팀의 순위가 극명하게 갈렸다.

팀당 60경기 안팎을 남겨둔 가운데, 5위 KIA 타이거즈와 6위 두산 베어스의 격차는 6경기로 벌어졌다.

7위 롯데 자이언츠는 7.5경기, 8위 NC 다이노스는 8.5경기씩 KIA에 뒤처져 있어 큰 이변이 없다면 올 시즌 가을야구의 주인공은 거의 정해진 분위기다.

1위 SSG 랜더스는 2위 키움 히어로즈에 7경기 앞선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3위 LG 트윈스는 키움을 1경기 차로 추격 중이다.

여기에 지난 시즌 우승팀인 4위 kt wiz는 LG를 5.5경기로 따라가며 '3강 체제'에 균형을 내기 위해 총력

SSG, 키움, LG, kt 4강 구도에 KIA만 5위 턱걸이

2019 NC, 2020 NC, 2021 삼성만이 PO행 전면 드래프트 부활...전력 양극화 해소 주목

전을 벌인다. 이처럼 올해 프로야구 순위표를 보면 수도권 구단의 '상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1월부터 5월까지 포스트시즌 진출 가시권 구단 가운데 지방 팀은 광주를 연고로 한 KIA뿐이며, 나머지 4팀은 인천과 서울, 수원이 연고지인 수도권 팀이다.

만약 현재 순위대로 정규시즌이 끝나고 5위 KIA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올해 가을야구는 수도권에서만 열린다.

KBO리그는 수도권 구단(SSG, 키움, LG, kt, 두산)과 지방 구단(KIA, 롯데, NC, 삼성 라이온즈, 한화 이글스)이 5팀씩 균형을 이룬다.

리그 흥행을 위해서라면 수도권과 지방 구단이 고루 상위권에 포진해야 하지만, 문제는 수도권 팀과 지방 팀의 순위 양극화가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9년(NC·5위), 2020년(NC·1위), 2021년(삼성·2위)까지 지난 3년 동안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지방 구단은 단 1개뿐이었다.

2017년 지방 구단 3개(KIA, 롯데, NC)가 가을야구에 초대받고, 2018년 2개 팀(한화, KIA)으로 줄어든 뒤 이제는 1팀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야구 유망주의 '수도권 집중'과 무관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샷이글' 김효주, 2주 연속 LPGA 3위

김효주(27)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유럽 대회에서 2주 연속 3위에 올랐다.

김효주는 1일 영국 스코틀랜드 에어셔의 던도널드 링크스에서 열린 LPGA 투어와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공동주관 대회 트러스트 골프 여자 스코틀랜드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

파 66타를 쳐 우승자 후루에 아야카(일본)에게 4타 뒤진 공동 3위(17언더파 71타)에 올랐다.

지난달 25일 프랑스에서 치른 예비암 챔피언십에서도 공동 3위를 차지했던 김효주는 사흘 뒤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AIG 여자오픈 전망을 환하게 밝혔다.

선두에 4타차 공동 9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김효주는 2번 홀(파4)에서 샷이글을 잡아내며 기세를 올렸다.

5번 홀(파5)에서 또 1타를 줄인 김효주는 선두 쉐린 부티에(프랑스)에게 2타차로 따라붙었다.

7번 홀(파4) 보기로 제동이 걸리는 듯했던 김효주는 9번 홀(파4) 버디에

이어 10번 홀(파4)에서 10m 넘는 버디 퍼트를 넣으며 우승 경쟁에 합류했다.

12번(파4), 13번 홀(파4) 연속 버디를 잡아내면서 우승 경쟁을 이어가던 김효주는 그러나 14번 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을 잘 쳐놓고도 2m 버디 퍼트를 놓친 게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았다.

김효주는 "계속 좋은 성적으로 대회가 마무리되어 기분이 좋다. 끝나면서 아쉬움이 조금 남지만 66타라는 좋은 성적을 내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